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걸어온 길

2024

- 12월 • 의기협-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당뇨병-비만치료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포지엄
- 10월 • '의료대란 속 의사와 환자, 소통과 공감' 심포지엄
- 9월 • 의기협-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이주영 의원 '외면받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방안' 심포지엄
- 8월 • 의기협-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1 활용을 위한 언론간담회'
- 6월 • 의기협-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
- 5월 • 삼성언론재단 선정 '미디어 아카데미' 연 9회 의기협-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민국 의료이용의 문제점과 해법' 미디어포럼
- 4월 • 의기협-이종이시선ELSI센터 '난치병 환자의 새 희망, 이종장기이식 현황과 미래' 콘퍼런스
  - 자문위원회 위촉
  - 의기협-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혁신포럼' 및 '제1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시상
  - 의기협-KMI한국의학연구원 '초고령사회, 건강검진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방안' 심포지엄
- 3월 • '메디컬 코리아 2024 (Medical Korea 2024)' 의기협-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포럼' 공동 진행
  - 회장 이취임식: 신임 회장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 취임

2023

- 11월 • 의기협-한국바이오협회-인트벤트파트너스 공동 '임상의사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 심포지엄'
  - 의기협-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제 1회 미디어포럼,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 9월 • 의기협-대한대장항문학회 공동 '2023 대장암 골든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
  - 의기협-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경험과 넥스트 팬데믹 대응 전략 심포지엄'
- 7월 • 의기협-보건복지부 '중증·희귀질환자 중심 건강보험재정 개편방안 심포지엄'
- 3월 • 의기협-한국건강학회 '한국형 건강검진 현황과 발전 방안 심포지엄'
  - 의기협-보건산업진흥원 '마이에데이터 시대의 보건 의료 혁신 심포지엄'

2022

- 12월 • 의기협-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언론인 대상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11월 • 의기협-대한당뇨병학회 공동 '2022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당뇨병 2차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
- 9월 • 의기협-라이나전성기재단 '가족간병 돌봄정책' 심포지엄
- 6월 • 의기협 주최 '환자 중심 항암제·희귀질환 혁신 신약, 바람직한 정책 방향' 심포지엄
- 5월 • 의기협-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공동 '재활의료기관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 4월 • 의기협-대한신경정신의학회 '새 정부에 묻는다: 정신건강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포럼
  - 의기협-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 심포지엄
- 3월 • 의기협-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타버스를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전략' 공동 심포지엄
- 2월 • 의기협-디지털헬스케어포럼 공동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디지털헬스케어가 가야 할 길' 심포지엄
- 1월 • 의기협-대한모발학회-정춘숙 의원실 공동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2021

- 10월 • '11시엔 스마트폰 아웃-소쿠리 헬렌지' 캠페인
  -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공동 '디지털미디어와 건강포럼'
- 5월 • 초대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취임
  - 창립 기념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국민소통과 집단면역' 심포지엄

## 회장 인사말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 (연합뉴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원 여러분. 회장 김길원입니다.

드디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2024 송년의 밤' 행사에 맞춰 협회보를 창간합니다. 협회가 2021년 2월에 창립식을 개최했으니 바야흐로 3년여 만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창립됐습니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확산하고 국민 불안이 커가는 상황에서 취재와 기사 작성에도 시간이 부족한 의학·보건 의료 담당 기자들이 왜 협회 만들기에 나섰을까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라는 미지의 감염병 위기가 우리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정신은 언론이 정부와 의료계, 제약바이오 업계 간 소통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코로나19 같은 미지의 질병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위기 극복을 이끄는 한 축이 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민 없이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내걸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간 참으로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각자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하나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부회장, 이사, 회원, 자문위원, 고문단, 사무국이 바쁜 시간을 쪼개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때론 준비 과정에만 몇 개월이 걸렸고, 회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조찬 미팅이나 이메일, 카톡, 화상회의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노력은 협회보에 소개된 '협회가 걸어온 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합니다. 또 그 사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윤리

현장 초안도 마련했습니다.

협회보를 빌려 그동안 묵묵히 협회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 여러분, 또 의료계와 정부,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람직한 보건 의료 정책 수립, 미래 의료기술 발전, 국민과 의료계의 소통 등에 더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협회를 창립하며 내건 초심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학기자가 바라봐야 할 시선의 종착역은 바로 국민 건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가 갖는 사회의 파수꾼 역할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를 다루는 기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더욱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여되는 '올해의 의학기자상'과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도 이런 토대 위에서 제정됐고, 심사가 이뤄졌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의 기반 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기협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새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회 의기협 '의학기자상'에 권선미·김잔디·이슬비 기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제1회 의기협 '2024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자로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권선미 기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의학기자상은 협회 회원 중 한 해 동안 의학·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기사를 발굴하고 보도한 기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선미 기자는 남성의 HPV 감염과 담도암 위험을 다룬 'HPV 백신은 여성에게만 필요하다? 남성도 암 걸리고 생식 능력 떨어져', '담도암 세계 발생률 2위 한국...담석 있다면 발생 위험 최대 11배' 기사로 대중들에게 낯선 의학 정보를 이해하

기 쉽게 보도했으며, '월요藥담회' 시리즈에서는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2024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은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와 헬스조선 이슬비 기자가 공동 수상했다. 김잔디 기자는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 서약 및 이행' 연속 보도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사태를 다룬 '전공의 공백에 6대 암 수술 감소...간암 23%·위암 22% 줄어' 기사로, 이슬비 기자는 의료계 산적한 현안을 다룬 '타투는 불법, 타투리스트 양산은 합법...모순 속 피해는 소비자에게', '의료용 대마' 합법화 6년...환자

들의 삶은 조금 편안해졌을까' 기사로 수상했다.

『환자소통' 올해의 병원경영인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중심의 경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이화의료원 유경하 의료원장에게 돌아갔으며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은 협회와 상생에 적극 나선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가 선정됐다.

또 협회 자문위원단을 이끌어 준 강대희 자문위원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과 협회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메디라인엑티브코리아 강대원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걸어온 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이하 의기협)는 국내 언론매체 40여 곳의 의학(건강)·바이오 분야 담당기자 100여 명이 활동 중인 단체로 2021년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 ■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에 앞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보건의료계가 위기에 직면했을 당시 의기협은 국내 코로나 19 상황을 조명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후 창립 기념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소통과 집단면역’ 심포지엄을 개최해 감염병 극복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 유행 후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급증하자 하반기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립원과 함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이 부르는 건강문제를 조망하는 심포지엄을 열었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일명 ‘소쿠리캠페인’도 시행했다.

### ■ 2022년, 잠자고 있는 보건의료사안 공론화

2022년에는 여러 보건의료사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다수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빨간불이 켜진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업을 시작했다. ‘정신건강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며 정신건강 논의의 첫 시작을 알렸고 서울 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함께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 객관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 ■ 2023~2024년, 새 집행부 출범...회원 소통 강화

코로나19 엔데믹을 기점으로 미래의료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한편 의대정원 확대에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올해는 2대 회장 취임과 함께 새 이사진이 출범했다. 2대 회장으로는 연합뉴스 김길원 의학전문기자가 취임해 전임 김철중 회장의 뒤를 이었다. 자문위원단도 위촉해 협회의 발전과 회원 간 소통을 공고히 하고 삼성언론재단 선정 ‘미디어 아카데미’를 시작, 회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의기협은 언론 본연의 기능인 사회감시망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성 있고 올바른 의학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정선 편집위원장  
(헬스경향)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윤리강령 초안 마련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윤리강령 초안이 마련됐다. 협회 장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출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윤리위는 정명진 위원장(파이낸셜뉴스)과 박상철(서울대로스쿨 교수), 박효순(전 경향신문·고문), 박태해(세계일보·고문) 위원으로 구성했다.

초안 마련은 박상철 위원이 주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 윤리강령 등을 기본 틀로 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윤리강령을 제시한 미국 건강의료 전문기자협회(AHCJ) 윤리강령을 참조했다.

권력과 자본 감시라는 기사로서의 기본적 사명과 함께 의학·바이오 분야 언론인의 전문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윤리강령의 핵심은 △진실, 정확성, 전문성 추구 △공정성과 투명성 △인권 존중과 피해 최소화 △독립성 △품위 유지 △책임성으로 크게 나뉜다. 다음은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이다.

- ◇ 회원 기자는 진실·정확성·전문성 추구 원칙에 따라 연구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도하고, 통계적 해석을 명확히 하며 연구의 한계점을 명시해야 한다.
- ◇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해야 한다. 예컨대 제1상 임상시험의 주된 목표는 유효성이 아닌 안전성 평가이기 때문에 효능과 관련한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 의학·바이오 분야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학술논문과 학회자료를 보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건강 관련 중요 뉴스가 사소한 보도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아야 한다.
- ◇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해야 한다.
- ◇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은 취재원의 이해관계 검증, 다양한 관점 제시, 독립적 전문가평가 포함을 요구한다.
- ◇ 인권 존중과 피해최소화원칙에 따라 취재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과 시민 중심적 관점 유지를 강조한다.
- ◇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에서 벗어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정명진 윤리위원장  
(파이낸셜뉴스)

## 수상자 심사평

서양의학 도입 10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의료가 연초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의료대란이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학기자들이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소속 의학기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 처음 제정한 의학기자상에는 총 11명의 기자가 주옥같은 기사로 응모해줬다.

저는 협회장으로부터 의기협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기자상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후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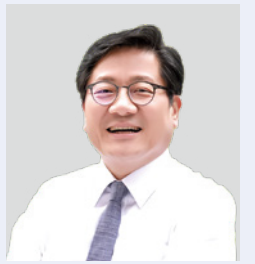
심사위원으로는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 이병문 의기협 고문(매일경제 의학전문기자),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참여했고 수상자 평가는 기사의 사회적 반향(40%), 독창성(30%), 협회 공헌도(3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각각 점수를 매겨 합산했다.

그 결과 ‘올해의 의학기자상’은 최고점을 받은 중앙일보 헬스미디어의 권선미 기자가 선정됐다.

권 기자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의학·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왔다. 특히 대표 시리즈인 ‘월요藥담회’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중증·희귀질환 관련 의학 지식을 알리는 데 집중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은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와 헬스조선 이슬비 기자에게 돌아갔다. 두 기자 모두 의료계 현안과 건강정보를 중심으로 한 시의적절한 기사들이 돋보였다.

아쉬움이 드는 건 수상작에 필적하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모두에게 상을 드리지 못한 점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의학기자에게 상이 수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강대희 자문위원장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 소감

처음 수상 소식을 듣고 기사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순간 ‘고생했다’라며 격려를 담아 주신 상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후배 기자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돼 더 크게 느껴집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건강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의학 분야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건강·헬스케어 분야 기사를 작성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여겨지는 건강 상식일 수 있지만, 진료지침이 업데이트되면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개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는 않지만, 일

반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신뢰도 높은 기사로 일반인의 건강·보건의료 분야 이해도를 넓히고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짚어주면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의료 분야의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는 기사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늘 버팀목이 돼준 아이들과 남편, 부모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넘치는 도움과 애정을 주신 취재원 분들의 조언,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들, 모두와 함께 만든 상인 만큼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권선미 기자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 수상 소감

##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

김잔디 기자  
(연합뉴스)

우선 상을 주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치 못했던 터라 수상 소감을 적는 것마저 낯설기만 하네요.

그동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해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어느 때보다 의료계 기사가 주목받았는데,

이러한 시기에 상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취재하고 더 꼼꼼히 쓰겠습니다.

이슬비 기자  
(헬스조선)

제1회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건강매체인 헬스조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생활 밀접형' 기자라고 부릅니다. 종합일간지와 달리 매일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쓰다 보니 의료기사의 지평을 질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생활요소가

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성한 타투, 의료용 대마, 퓨린 제로 맥주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법안이 방치된 탓에, 슈퍼음로 살아가는 타투이스트 친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타투를 받은 동생은 피부질환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뇌전증환자는 허술한 의료용 대마법

체계에서 여전히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낙이었던 맥주를 끊은 어느 통풍환자의 애기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제가 쓴 기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기사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 '환자소통' 올해의 병원경영인상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 상은 위기탈출을 좀 더 슬기롭게 했다고 평가받은 이화의료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의료원은 5년 전 이대서울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전공의 없이 시작했지만 요즘 얘기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대신 전공의 없이도 당분간 운영되는 병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체제를 일단 5년 정도만 버티자고 독려하면

서 3교대 PA와 교수당직제를 운영해보니 최근 2~3년 새 화두가 된 필수요료가 저절로 특화됐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뇌혈관병원과 엄마아기병원입니다. 또 응급실은 자연스레 권역응급의료센터 격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돼 의료대란 이전의 상황처럼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대목동병원도 어려운 시기에 교직원과 의기투합해 각 직역끼리 서로 끌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화의료원에는 137년 전 미 감리교단의 여성 의료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조선을 찾아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여성, 소아, 장애인을 위한 의료를 펼친 보구녀관이 복원돼 있습니다. 이 정신을 지켜온 게 오늘의 큰 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큰 영광을 안겨주신 김길원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우선 큰 상을 주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한다'는 미션 아래 1968년 창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세 이상 성인의 15.5%, 65세 이상의 29.3%가 당뇨병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학, 기초연구, 간호, 영양, 사회복지 등의

전문가 회원 4천여명이 당뇨병 극복과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의기협과 MOU를 맺어 당뇨병 관련 중요 연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도출해 심도 있는 전문기사를 창출해 내는 한편 인크레틴 기반 약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기획했습니다. 또 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간 기

자들의 질의에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기협과 학회가 전문적이고도 신속한 협력에 'win-win'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학회는 국민 소통을 통한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기협과 학회가 서로 더욱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황재홍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장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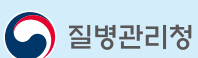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는 올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큰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임플란트 치료의 현황을 제대로 알리거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기회는 전무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두 단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심포지엄을 심도 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준비했고 언론인, 치과의료종사자, 일반 국민이 함께 임플란트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성공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상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길원 회장님과 임원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 실제 임상에서 국민에게 즉시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주제와 강연을 만들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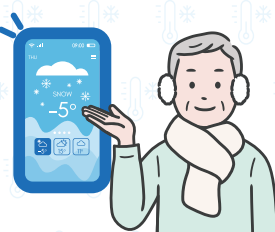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올 겨울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예방합시다!

외출 전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추운 날은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추운 날은  
장시간 외출 자제 및 보온유지

고위험군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 자제 및 보온 유지!

발행일 2024년 12월



## 의정갈등, 끝은 어디인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접근성, 비교적 낮은 비용 등 호평을 받아온 우리 의료의 이면에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켜켜이 쌓여온 것이 사실이다.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 고위험·고난도 중증·필수의료에 불리한 보상체계, 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비급여 증가 및 의료공급과 이용의 괴리를 불러오는 실손보험 문제까지. 의료시스템을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이대로 두고는 직면한 초고령사회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의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생명 직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소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체계와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기간 동안 중환자부터 경증환자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국가 예산 지원을 시작한다.

두 번째 방향은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과 지역의료 재건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권역 내 병원들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구조 전환은 지난 10월부터 이미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하였다. 또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2차 병원의 구조 전환을 집중 지원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등 저보상된 수가를 정상화하고 의원-병원 간 수가 왜곡, 분야별 수가 불균형을 전면 혁신한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소아·분만, 야간·휴일, 취약지 등 6대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인 수가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보상체계의 왜곡을 가속화시키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은 완화하고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 노력을 지원하고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배상체계 구축, 중과실 위주의 형사별 원칙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의료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의료체계의 틀을 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전문지식인이 그들의 영역에서 최선의 직업윤리를 발휘하고, 국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려면 국가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그러한 포용적 국가시스템과 정치는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집필한,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 정치·경제 체도를 가졌고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형 체도를 갖는다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도대체 무슨 감명을 받았다는 것인가?

필수의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의료개혁과 일정규모 의대증원은 의료계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으나,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학생에게 무조건 현장에 복귀하라고 설득할 의대 교수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없는 듯 하다. 현 의정갈등을 지식인 저항운동으로 변화시키고 퇴로를 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의료문제의 본질은 수십 년간 누적된 정부정책의 실패와 적은 국가재정 투입으로 온갖 선심을 쓴 포퓰리즘 정치에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저부담 저수가로 설계됐다. 2000년 의료전달체계가 폐지돼 경증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지방환자들은 고속철도를 타고 수도권으로 몰렸다.

2007년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한다고 정했으나 정부는 올해도 14.4%로 법정책임은 지키지 않고 저수가를 고착화시켰다. 2017년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실손보험을 확대해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의료사용에 제한을 갖지 않게 됐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적자진료를 피하고자 전공의를 전제 의사의 45%까지 고용하며 80시간 노동 야간당직, 교육과 무관한 일까지 시켰다. 전국구 병원이란 허울뿐인 목표 아래 교수들을 명의로 홍보하고 지방환자 경증환자들까지 제한없이 흡수해 저수가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 70~80% 원가 보전율의 저수가 체계에서 정부는 실손보험 영역 확대에 침묵했고, 비급여진료 확산을 통한 의료의 영리화를 방관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옳지 않다. 서울의대, 한 국개발연구원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모두 점진적 증원을 권했다. 출생률 감소에도 소아과 전문의는

2010년 5501명에서 2020년 7298명으로 증가해 인구대비 미국과 비슷하며, 병원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외과 전문의는 1.7배, 산부인과는 1.6배, 흉부외과는 1.3배, 신경외과는 OECD 국가 대비 3.5배 많기 때문에 의사증원보다 이들 전문의들이 피부미용 분야로 빠지는 원인 해결이 급선무인 것이다.

또 앞의 연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저출산의 영향, 의료개혁의 성공,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경증 의료이용 감소, AI 등의 신 의료기술 적용은 미래의료 공급자수요를 대폭 줄일 것이기에 파격적 증원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국가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정책은 전문가들을 존중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요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이공계 영역을 포기해서라도,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10년 후 한국의료를 위해 2000명 의대증원을 기필코 해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의정갈등의 끝과 국가의 미래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야간응급 수술이 많고 고되지만 저수가와 법적 소송에 술하게 노출돼 대장항문외과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또 장이 터지고 장이 막혀도 수술해 줄 의사가 사라진 대한민국으로 귀결될 것이다. 단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나, 대통령이 현재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상식이 통하는 정부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면 해법은 어렵지 않다.



강성범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빚어진 의·정 갈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학기자들도 해당 사안의 취재·보도에 1년 가까이 매달려 있다. 이 분야 기자들이 이처럼 한 가지 이슈에 오래 붙잡힌 적은 과거 의약분업 사태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코로나19 대유행 정도였던 걸로 기억된다.

언론은 대개 큰 사건·사고가 있으면 현상의 발생원인, 해결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며 마지막 정리를 한다. 현재의 의·정 갈등은 지속되는 관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를 넘기는 이 시점에, 정부와 의료계 스스로 지나온 길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도 소명을 다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자성과 성찰을 통해 짝 막힌 대치 상황에 돌파구를 찾거나 향후 맞닥뜨릴 큰 파고를 넘을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초고령사회에 증가할 의료 수요를 감안해 의사 수의 대폭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의대 증원의 논리와 근거가 의료계를 전혀 설득하지 못했는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정책을 이뤄내겠다는 오기가 작동했다. '4·10 총선용'으로 기획된 의대 증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하지만 아무리 방향성이 옳고 명분이 좋아도 절차적 정당성에 설득력이 없으면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과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작금의 상황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의료계는 사태 초창기 자만과 오관이 미숙한 대처를 불렀다. 과거 몇 차례 정부와 갈등 상황에서 과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를 무릎 꿇렸던 학습 효과에 빠져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쉽게 생각했다. 여기에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의사협회의 리더십도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언론 역시 자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직후 한동안 언론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여론으로 정부를 편드는 데 치중했고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 분석, 의대 증원의 근거 검증, 증원이 가져올 후폭풍 등 본질적 이슈의 보도에는 다소 소홀했다. 의·정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시간이 지나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이공계의 의대 쏠림, 의사 수급 차질로 빚어지는 문제 등을 깊이 짚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보다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언론 역시 자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직후 한동안 언론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여론으로 정부를 편드는 데 치중했고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 분석, 의대 증원의 근거 검증, 증원이 가져올 후폭풍 등 본질적 이슈의 보도에는 다소 소홀했다. 의·정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시간이 지나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이공계의 의대 쏠림, 의사 수급 차질로 빚어지는 문제 등을 깊이 짚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보다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의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 의료 시스템,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 언론 모두 위기 의식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만을 요구하며 방관하기보다 스스로 먼저 변화하려는 유연한 자세로 소통하며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국민일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이 원하고 현 정부의 지지율도 상당히 좋아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4월에 있을 총선용이다' '천공이 던진 숫자다'라고 정부를 맹공하기 시작했고 벌써 10개월이 흘렀다. 대다수 국민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왜 의사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느끼고 있는 의료 자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수요자인 국민은 의사들과 진료실에서 마주할 때마다 뭔가 부족하고 주눅이 들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반면, 공급자인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와 저렴한 수가로 인해 1명의 환자라도 더 봐야 수입이 늘어나니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와 비급여 위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병원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이다.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 공공의료의 부재 등 산적된 문제로 촉발된 이번 의대정원 증원문제는 그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하며 필수의료 패키지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나섰다. 의사나 국민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과연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참 답답하고 막막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나갈 때만 해도 한두 달 내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 했으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오히려 전공의들의 강한 저항으로 정부도 5월이 넘어서면서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속출했지만 아직도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임현택 회장을 탄핵하며 비대위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고 한다.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새로운 집행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와 정부와 함께 이 사태를 조속히 봉합하고 환자와 의료계 간 신뢰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단순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에도 온갖 검사와 각종 영양제 등을 처방하고 매일 오게끔 만드는 지금의 의료시스템에서는 좋은 의사도, 좋은 환자도 만나기 쉽지 않다.

단순 감기 환자라면 지역의 1차병원 의사가 진찰한 후 "집에 가서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혹시 밤에 열이 날 수도 있으니 약국에서 해열제 사서 드세요. 만일 계속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등 증상이 악화되면 그때 다시 병원에 오세요"라고 설명하고 약 처방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환자는 이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한다. 이러한 병원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에 남아 있어야 진정한 의료개혁 아닐까. 숫자로만 단순히 늘려 급조해서 만들어진 구조로는 버티기 어렵다.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사를 믿어야 한다. 의사도 환자를 단순한 돈벌이 대상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제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맑은 눈으로 다시 협상테이블에 참여하길 바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마약을 이기는 힘**

**용기 한걸음, 함께 한걸음**

**1342**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자들이 피했으면 하는 단어 의학기사에 많은 ‘완치’...‘완전관해’가 맞습니다

이세훈 교수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학기자들이 치열하게 취재하고 독자의 눈높이로 기사를 작성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몇 가지 용어를 조심스럽게 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간혹 암환자들에게 ‘특정 치료제를 쓰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진땀이 나기 때문이다.

우선 ‘완치’라는 말은 의료현장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완전관해’라는 표현을 쓴다. 완치란 아주 조그마한 암세포조차 없어 암이 재발할 우려가 사라짐을 뜻한다. 반면 완전관해란 영상학적으로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현대 의학기술로 암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사에 완치란 표현을 조심히 사용해주면 매우 감사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이라는 표현이다. 보통 고형암 중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암은 수명연장을 위한 항암 치료를 진행한다. 이때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는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과 ‘전체생존기간’이 쓰인다.

무진행생존기간은 ‘질병의 진행 없이 생존한 기간’으로 특정 약제가 효과를 갖는 기간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양에 대한 통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차수 진행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 약제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항암제의 효능은 무진행생존기간이 중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생존기간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한 가지 특정 약제가 아닌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더욱이 암 또는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사건, 외상 또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생존 기간이 긴 암이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특정 약제의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요즘 의정 갈등으로 현장에 남은 교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때 도움 되는 것이 언론인들의 기사다. 칼럼을 쓸 기회를 준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초능력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김우준 기자  
(KBS)



새벽 세 시 반. 손을 휘적휘적 내젓는다. 한두 번 부딪치니 식탁이 어디에 있는지 몸이 기억한다. 앞으로 세 걸음. 어렴풋이 보이는 분유통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뻗는다. 그제야 눈꺼풀에 매달려 있던 ‘잠기운’이 달아난다.

물 온도 45도, 거품양 1% 미만의 따끈따끈한 분유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100초. 몽롱하게 취해 분유 몇 스푼을 넣었는지 헷갈렸던 초보 행색은 진즉에 벗어났다. 찜얼거림이 포효로 변하기 전에 아기방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입 안에서 맴돈 울음이 슬금슬금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 젖병을 아기 입술에 부드럽게 밀어 넣는다.

깊은 새벽 눈 감고도 똑딱 분유를 만들 수 있을 때쯤. 신체 능력이 전과 달리 몰라보게 향상됐음을 깨달았다. 칠층 같은 어둠 속에서도 ‘꼭꼭이’를 찾아내는 제3의 눈. 2시간 토막잠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미세한 울음소리를 감지하는 소머즈 귀. 코끝만 스쳐도 대소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개코. 웅얼이에 화성을 쏘고, 변주까지 줄 수 있는 입. 실험을 통해 약골에서 슈퍼히어로가 된 ‘캡틴 아메리카’와 비슷하달까. 머리채가 뜯겨도 웃을 수 있는 인내력은 덤이다.

초인적인 신체를 얻고 싶다면? 단단한 멘탈을 원한다면? 답은 멀리 있지 않다.

### 의학기자들의 별별 취미

## 산은 우리 인생이다

서정운 기자  
(매경헬스)



온통 하얀 세상으로 뒤덮인 지리산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산과의 인연이 벌써 8년째.

처음 3년은 지리산 종주를 자주 즐겼다. 지리산의 주 능선을 타는 종주코스는 약 40km를 걸으며 하루에 수십 개의 봉우리를 오르고 내리는 극한의 코스다. 종주를 마칠 때까지 산속에서 머물며 잠은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자야 한다. 치약과 비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고, 몸을 뒤척일 수도 없는 좁고 딱딱한 나무 바닥에서 3~4시간 쪽잠을 잔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현대 문물과 단절된, 찌지 못하는 찻집한 고통도 덤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2017년 처음 지리산 종주에 도전하며 이런 글을 남겨뒀다. ‘산은 우리 삶과 많이 닮아있다. 정상상을 향해 오르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한다. 완만한 길, 가파른 경사, 울퉁불퉁 돌길, 얼어붙은 빙판길, 길마다 걷는 법을 달리하고 대처법도 달라야 한다. 우리의 삶처럼’.

‘정상을 오르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산은 우리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선물한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는 스승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여전히 산을 찾는 이유이자 매력인 것 같다.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항상 이 말을 새기며 산을 찾는다.

## 인생은 재즈처럼

김수진 기자  
(한국경제TV)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Music begins where the possibilities of language end)’. 천재 음악가로 알려진 모차르트가 남긴 말입니다. 그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음악이 때로는 언어보다 큰 의미를 담는 도구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차르트까지 끌어들이는 서론이 됐는데, 오늘은 사실 제 ‘부캐(副 Character)’를 짧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부캐는 재즈 싱어입니다. 많은 의기협 기자들이 내공 깊은 ‘음악 애호가’로 알려져 있어 음악을 즐긴다고 말하기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학생 때 스쿨밴드로 시작했던 취미지만, 이제는 다양한 장르 중 ‘재즈’라는 알맞은 옷을 찾게 됐습니다.

재즈는 형식이 자유로운 데다 즉흥연주로도 유명한데요. 피아노, 베이스, 드럼 주자들과 솔로를 주고받거나, 미묘한 변주를 만들 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꼭 빠지기 십상입니다.

언어로 가득한 의기협 기자들의 하루. 가끔은 음악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특히 악기를 배우고 있거나, 밴드를 경험해 본, 거기다 자유로움을 좋아하는 의기협 회원이라면 재즈를 권해 봅니다.

#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 Breakthroughs that change patients' lives



**Pfizer**  
한국화이자제약



## 협회에 바란다



### 연대하여 나아가라

협회, 특히나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로서의 협회는 취재와 보도라는 본래적 사명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추구해야 한다. 바로 연대에 대한 비전과 행동양식이다.

지금처럼 보도의 통로가 다변화된 사회일수록 연대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 연대를 통해 사회 또는 국가나 권역 나아가 지구적 이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적 혹은 인류적 공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한 2015 WCSJ (World Conference of Science Journalists)는 하나의 지향이자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삼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혼신을 다해 이룩한 성취와 이를 가능하게 한 연대의

경험을 방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경륜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연대는 결집이고 행동이며 도전이다. 연대는 언론인 개인이나 자사이기주의 같은 소아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며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무한한 동력이다. 바라건대 협회가 이런 가치지향적 집합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천착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내딛는 진취와 진보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란다.

전임 김철중 회장, 그리고 현 김길원 회장과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회원 모두의 방약한 비상을 기원한다.



심재익  
전 한국과학기자협회장

### 의학기자 ‘사관학교’로 거듭나기를

기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의학기자에게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의료가까지 새로운 의료기술이 끊임 없이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신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사로 소개하는 일은 다양한 데이터와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의학지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 역시 ‘이해도’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한 저는 취재원과 동료들로부터 “전공이 이과라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이토카인, NK 세포, mRNA 등과 같은 전문용어가 나와도 한번은 공부했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기사로 풀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과정을 대다수의 기자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막히기 일쑤이다 보니 아쉬움이 큼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회가 의학기자 ‘사관학교’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의학·바이오 분야의 기초·임상 지식과 네트워킹을 쌓을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

### 신뢰받는 건강정보 가교역할 기대

최근 몇 년간의 감염병 위기를 거치면서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의 정보는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며 그 영향력도 큰 만큼 작은 오해나 과장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이나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보도, 신약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소식 등이 국민에게 혼동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의학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신뢰성 있는 보도를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의료 현안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건강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한해 국민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병원인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의료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론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병원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의료계의 사기도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 속에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강정보의 가교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 우수한 K메디컬,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건강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는 건강 문해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의료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경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정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의학전문기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료종사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진료와 환자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K-메디컬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과 바이오기술은 세계적

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 혁신적인 연구결과 및 성공적인 치료사례를 국제학술대회 참여, 해외 언론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주길 바랍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국민건강 증진과 K-메디컬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며 한국병원홍보협회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두 협회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것입니다.



박미순  
한국병원홍보협회장

**DUAL FILTER**  
유속 향상

**정방향 PRIMING**  
편리성

**미세 침전을 체내 유입 방지**  
환자 안전

**1.2 TDF**  
TPN Dual Filter  
IV Filter 수액 세트

Medi Line Active Korea

생애주기 맞춤 올인원

**센트룸 원데이팩**  
Centrum One Day Pack

성별, 연령에 따라 필요한 성분을 한 팩에 쏙!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2409-PM-KR-CNT-24-00200 | 건강기능식품 | 센트룸 원데이팩 우연 2030, 센트룸 원데이팩 우연 40, 센트룸 원데이팩 우연 50+, 센트룸 원데이팩 우연 2030, 센트룸 원데이팩 우연 40, 센트룸 원데이팩 우연 50+ | 제조원: 동아제약(주) (의약품) | 유통권판매처: 해일리온크로아주식회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협회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45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인증 획득

#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 이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이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http://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